

## 소식 6

### 할렐루야

2015년도 벌써 4달이 지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올 한해 다짐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점검하시고 남은 시간을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곳 일본에 온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짧지만 이곳 선교지의 삶은 저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다시 생각 하게 하며 뒤돌아보고 반성하게 합니다. 주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일본까지는 잘 순종하며 왔는데, 이곳에서의 믿음의 순종은 저희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주께 받은 그 큰사랑을 나누고 또 전하러 왔는데, 막상 매일 삶 가운데서는 이들이 필요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만큼 나누지 못하는 저희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항상 낙망과 소망의 갈림길 앞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은 선교지에서 삶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곳에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들은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삶과 학교에서 예전과는 다른 도전을 받고 있으나, 매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일본을 더 사랑하는 훈련 중 입니다. 언어적으로는 오사카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을 지적 받을 만큼 자연스러워 졌습니다. 아이들의 적응은 일본어를 못하는 저에게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항상 선교사로 학교에서 자신을 뒤흔다하며 주님의 빛을 발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홍준희 선교사는 아이들 친구 부모와 만나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 1월에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이 일본 부흥을 위한 기도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이곳에서 3월부터 매일 일본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 하였습니다. 이 모임에 많은 일본분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일본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도원 주위 일본 이웃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순교자가 가장 먼저 나온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는 자가 하나 없고, 곳곳에 복술집과 신당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복음의 빛이 강하게 임하고, 기도원 주위의 이웃 분들이 속히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Shimoshiro(반장),2)Tatsumi, 3)Yasui, 4)Higuchi, 5)Sasaki, 6)Yuda, 7)Miyazaki, 8)Matsuzaki, 9)Baba, 10)Fujimoto, 11)Kusumoto, 12)Higuchi, 13)Inada, 14)Nomoto, 15)Igo, 16)Uchino, 17)Yamajou, 18)Kureha, 19)Kawamura, 20)Miyawaki, 21)Yamanaka, 22)Otsuki, 23)Inada Toshitaka 24)Matsui,